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의류학 분야의 수정 전개 방안*

The Improvements of the Clothing and Textiles Field in the 5th Edition of KDC

김 정 현(Jeong-Hyen Kim)**

< 목 차 >

I. 서론	2. 의류학 분야의 분류체계 비교 분석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III. KDC 의류학 분야의 문제점 및 수정 전개 방안
2. 연구방법	1. KDC 의류학 분야의 문제점
3. 선행연구	2. KDC 의류학 분야의 수정 전개 방안
II. 의류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 및 분류체계	IV. 결 론
1. 의류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	

초 록

이 연구는 의류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과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의류학 분야의 분류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KDC 제5판 의류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의류학 분야의 학문적 연구영역이 연구분류체계와 문헌분류체계에서는 대부분 민속학(복식), 화학공학(세탁, 염색공학), 제조업(피혁 및 모피공업, 직물 및 섬유공업, 의류제조), 생활과학(의복), 공예 및 장식미술(염직물공예) 등의 세목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의류학 분야 KDC 유별 자료현황을 조사하여 특정 분류항목에 지나치게 자료가 집중되고 있는 KDC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분류항목의 수정 전개는 원칙적으로 의류학 분야의 학문체계에 따르되 기존의 KDC 분류체계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항목간의 이동은 최소화하였다.

키워드: 한국십진분류법, 듀이십진분류법, 의류학분류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general problems concerning the clothing and textiles field in the KDC 5th edition based comparative analysis academic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system, and suggested on some ideas for the improvements of them. Results of the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clothing and textiles field is generally divided by costume, dyeing engineering, leather & fur processing, textiles and textile industries, manufacturing clothes, management of clothing, and textile arts. Second, I proposed improvements based on analyzing problems of KDC 5th to the clothing and textiles field from the collection database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ird, basically improvements of KDC system was based on the knowledge of the clothing and textiles field. I tried to maintain as the KDC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 was to retain as much as possible, and to move between items was minimal.

Keywords: KDC, DDC, Clothing and textiles classification

* 이 논문은 2010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gim@chonnam.ac.kr)

• 접수일: 2012년 8월 24일 •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7일 • 최종심사일: 2012년 9월 21일

I.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에 있어서 문헌분류는 전통적인 학문분류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학문분류와 문헌분류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개되는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즉, 문헌분류는 출판된 문헌을 대상으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서가상에 배열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문헌의 양에 따라 서가배치가 달라지며, 분류체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문헌 분류체계의 경우 아무리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학문이 발전하고 출판량이 늘어남으로써 분류항목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의류학 분야도 최근의 학문 발전과 성과를 감안하면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의류학은 의복을 대상으로 이를 착용하는 인간과 그를 둘러싼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의류학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섬유 및 의류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학문영역 또한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공학, 디자인, 예술 등과 연계되어 점차 세분화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분류체계에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류표라고 할 수 있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은 처음부터 DDC를 바탕으로 주류를 배치하였으며,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강목부분을 대폭 수정 전개하였다. 그런데 그 동안 네 차례의 분류표 개정작업이 있었지만 분류표의 실증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즉, 분류표간에 단편적인 비교 연구는 있었지만 실제로 분류되고 있는 도서관의 유별 자료 현황을 분석하여 KDC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2009년에 개정된 KDC 제5판 의류학 분야의 분류 적용현황을 조사해보면 일부 분류항목의 경우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는 반면, 세목이 미비하여 동일한 분류기호에 상이한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분류항목도 있어 분류의 의미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연구는 의류학의 학문적 특성과 분류체계, 국립중앙도서관의 KDC 유별 자료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KDC 제5판 의류학 분야의 분류체계를 수정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KDC 제5판 의류학 분야의 분류체계를 수정 전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

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의류학 분야의 분류체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의류학의 학문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류학 관련 학술문헌을 바탕으로 의류학의 발달과정 및 연구영역 등을 분석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표준분류표라고 할 수 있는 KDC를 비롯하여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DDC, LCC 등의 의류학 분야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한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국가서지 가운데 의류학 분야 자료 15,400여건을 추출하여 KDC 유별 자료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세목이 미비하여 동일한 분류기호에 지나치게 자료가 집중되는 분류항목이 있는가를 분석한다.

넷째, 앞서 분석한 의류학의 학문적 특성 및 분류체계, 유별 자료현황을 바탕으로 KDC 의류학 관련 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분류항목의 전개는 의류학 관련 개론서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한다.

3. 선행연구

각 주제 분야의 학문적 특성과 문헌분류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분류표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분류체계를 수정 전개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의류학 분야의 분류체계와 관련이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류학의 학문적 특성이나 연구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의류학 관련 개론서를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이 일부 소개되고 있다. 또한, 의류학의 학술논문을 분석하여 의류학의 학문적 특성이나 연구영역, 연구경향 등을 소개한 논문들이 있지만, 학문적 분류체계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절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둘째, 의류학의 학문영역을 학문적인 연구대상의 분류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분류체계가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표』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들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절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연구분류체계는 의류학을 포함하여 학문분야의 전개가 대체로 포괄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실제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문헌분류표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셋째, 문헌분류체계 가운데 의류학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양숙은 KDC, NDC, DDC 등의 가정학부문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¹⁾ 김효숙은 가정학 분야의 유별 장서량을 분석하여 KDC 가정학류의 분류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²⁾

1) 李洋淑, 家政學部門 分類表의 比較分析(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86).

2) 김효숙, 한국십진분류법 가정학류의 분류표 개선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4).

이들 연구는 의류학의 분류체계를 일부 다루고 있으나 의류학의 분류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류학의 학문적 특성과 분류체계, 의류학의 유별 자료현황 분석을 토대로 KDC 의류학의 분류체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I. 의류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 및 분류체계

1. 의류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

가. 의류학의 발달

의복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의복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유구하지만 대학에서 의복에 관한 내용이 교육되기 시작한 것은 1872년 Iowa 주립대학에서 'Housekeeping'이라는 강의가 이루어지면서 부터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의류학은 가정학의 한 분야로 1929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가사과 설립에서부터 시작되었다.³⁾ 즉, 인간의 의·식·주생활 중 하나인 의생활 전반에 대한 연구가 대학의 가정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의류학은 광복 이후 급진적인 변화와 발전을 하였다. 1950년대에는 서양복의 디자인, 제작, 착용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여졌다. 특히 1959년에 대한가정학회가 창립되어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양재 분야가 학문으로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1977년에 창립된 한국의류학회와 한국복식학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학회도 세분화되어 1993년 복식문화학회, 1996년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1998년 한복문화학회 외에도 많은 학회가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⁴⁾

앞으로 의류학은 변화하는 미래 속에서 독특한 전문 분야로서 세분화된 각 영역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니며 더욱 발전하여 나갈 것이다.

나. 의류학의 학문영역

의류학은 가정학의 한 전문 분야로 성립된 학문이며 인간의 사회 생태적 측면에서 의복이라는 매체를 통해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따라서 그 성격에 있어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예술 등을 포함한 종합적 학문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의류학은 의류를 중심으로

3) 나수임, 이정순, 배주형, "한국의류학의 연구경향분석, 1991-1999," 복식문화연구, 제8권, 제6호(2000), p.854.

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인용 2012. 8. 5].

각 분야가 종합되어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정립된 응용과학으로서, 의류학의 궁극적 목표는 의생활 향상을 통해서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

의류학의 학문영역은 크게 의복과학, 복식디자인, 의복구성학, 복식사회학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⁵⁾ 의류학 개론서⁶⁾의 대부분이 영역구분의 차이는 다소 있을 지라도 이러한 범주에서 의류학 학문영역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의류학의 학술논문을 분석하여 의류학의 학문적 특성이나 연구경향 등을 분석하면서 의류학의 학문영역을 구분한 논문⁷⁾을 살펴보면 의복구성학, 피복과학, 복식의장학, 복식사, 복식문화, 의상사회심리학, 의류상품학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복식사, 복식문화, 의상사회심리학, 의류상품학의 3개는 복식사회학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앞서 언급한 영역구분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

이들 학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의류학은 대체로 예술적 측면인 복식의장학 분야, 인문사회과학적 측면인 복식사회학, 과학기술적 측면인 피복과학과 의복구성학으로 대별된다. 즉 의복의 소재에서부터 인간이 착용하고 있는 상태까지의 기능적·미적·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취급한다.

한편 의류학과 대학원과정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의류학과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⁸⁾ 즉, 의류학과 교과과정은 학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의류나 섬유 제품의 디자인 및 개발, 생산, 머천다이징, 구매 및 사용 등의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식 분야에서는 소비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과 특징을 가지는 의류제품을 생산하는데 요구되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의복구성, 패션디자인, 복식미학, 복식사, 패션 마케팅, 복식 사회 심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 피복 과학 분야에는 피복 재료학, 피복정리학, 피복 환경학 등이 포함 되며, 섬유나 직물의 물리 화학적 성질, 염색, 가공, 제직, 세정 등을 다루며, 인체의 생리 현상과 관련된 의복의 물리적 성능과 쾌적성 등에 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2. 의류학 분야의 분류체계 비교 분석

가. 의류학의 연구분류 체계

연구기관이나 재단에서 모든 학문분야의 영역을 유사한 영역별로 군집화하여 일정한 체계에 따라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분야 분류체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5) 성수광, 의류학개론(서울 : 교문사, 1997), pp.14-17.

6) 李善宰, 衣類學概論, 改訂版(서울 : 修學社, 1993), pp.5-10.

大韓家政學會, 衣類學(서울 : 敎文社, 1990), pp.7-8.

趙貞嬉, 新衣類學概論, 改訂版(서울 : 耕春社, 1990), pp.i-ix.

7) 나수임, 이정순, 배주형, 전개논문, p.856.

鄭燦辰, 朴信貞, 黃善珍, “韓國衣類學 研究의 現況과 再照明, 1959-1990,” 韓國衣類學會誌, 제15권, 제1호(1990), p.31.

안명자, “의류학의 연구동향,” 논문집(대구산업정보대학), 제1권(1987), p.352.

8)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홈페이지, <<http://clothing.snu.ac.kr/>> [인용 2012. 8. 5].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3호)

『학술연구분야 분류표』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가 있다.

『학술연구분야 분류표』에서는 <표 1>에서와 같이 ‘자연과학>생활과학’의 하위항목으로 의류학(C120800)을 분류한 후, 다시 9개 세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류학 관련 항목으로는 ‘섬유공학’, ‘섬유디자인’, ‘의상’ 등의 항목아래 세목이 전개되어 있다.⁹⁾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서는 ‘사회>생활’의 하위항목으로 ‘의류(SE05)’를 분류한 후, 다시 9개 세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류학 관련 항목으로는 ‘섬유디자인’, ‘의상디자인’, ‘섬유제조’, ‘염색가공’, ‘섬유제품’ 등의 항목아래 세목이 전개되어 있다.¹⁰⁾

이와 같이 의류학의 연구분류 체계는 생활과학의 하위항목으로 의류학을 분류하고 있으며, 의류의 재료가 되고 있는 섬유제조관련 주제는 공학에, 섬유의 디자인 관련 주제는 예술에 분류되어 있다.

<표 1> 의류학의 연구분류 체계

학술연구분야 분류표(2012. 7)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09. 9)
C120000 자연과학>생활과학 C120800 의류학 (복식사, 복식미학, 의복구성, 패션디자인, 복식심리, 의류상품학, 의복환경학, 의류소재, 의류정리)	SE. 생활 SE05 의류 (의류설계 및 구성, 의류관리, 의류환경, 패션문화사, 복식미학, 패션마케팅, 패션소비자행동 등)
D000000 공학 D210000 섬유공학 (섬유고분자재료, 섬유고분자물리, 섬유고분자합성, 섬유고분자재료역학, 섬유고분자특성분석, 섬유구조, 섬유미세구조학, 섬유집합체공정, 섬유기계/자동 제어섬유가공, 섬유/의류품질관리, 염색공학, 섬유/의류환경, 섬유공장시스템, 이패럴공학, 방적공학, 제직/제편공학, 방사공학, 감성공학, 섬유계측공학, 기타 섬유공학)	J. 화공 J07 섬유제조 (중합계질, 섬유방사, 천연섬유방직, 사가공기술, 제직기술, 방사설비, 사가공설비,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나노섬유제조기술, 제직설비 등) J08 염색가공 (침염기술, 날염기술, 사염기술, 가먼트 염색기술, 물리/화학적 가공기술, 염색설비, 가공설비 등) J09 섬유제품 (부직포제조, 부직포가공기술, 봉제기술, 의류패션, 편직기술, 섬유제품설비, 산업용 섬유제품, 나노섬유제품기술, 융합섬유제품 등)
G000000 예술체육 G040500 섬유디자인 (직물디자인, 염색디자인, 자수디자인) G050000 의상 (복식사, 패션디자인, 한국복식, 복식문화, 유행론, 복식행동분석, 패션제품분석, 무대의상, 기타의상)	HE. 문화/예술/체육 HE07 섬유디자인 (직물디자인, 편성물디자인, 서피스 디자인 등) HE08 의상디자인 (패션정보, 패션디자인, 코스튬디자인, 한국 전통복식디자인,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등)

9)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2012 <<http://www.nrf.re.kr>> [인용 2012. 8. 5].

10)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2009 <<http://www.nrf.re.kr>> [인용 2012. 8. 5].

나. 의류학의 문헌분류 체계

KDC 제5판(이하 판차 생략)의 의류학 분류체계는 <표 2>와 같이 사회과학의 하위항목인 380(풍속, 예절, 민속학)과 기술과학의 하위항목인 570(화학공학), 580(제조업), 590(생활과학), 630(공예, 장식미술)의 세목으로 분류하고 있다.¹¹⁾ 즉, 381.3(풍습: 복식), 577(세탁, 염색 및 동계공학), 585(피혁 및 모피공업), 587(직물 및 섬유공업), 588(의류제조), 592(의복), 636(염직물공예, 섬유공예) 등에 의류학이 배치되어 있다.

DDC 제23판(이하 판차 생략)의 의류학 분야는 KDC와 마찬가지로 391(풍습 및 장신구), 646(의복, 재봉), 667(세탁, 채색, 도장 및 관련기술), 675(피혁 및 모피공업), 677(직물 및 섬유공업), 685(피혁과 모피상품, 관련제품), 687(의복제조 및 액세서리), 746(염직물공예) 등에 의류학이 배치되어 있다.¹²⁾ 1876년 DDC 초판의 의류학 분야는 390(풍습 및 의상), 646(의복), 667(염색 및 표백), 675(피혁 및 모피), 677(섬유직물 제조), 678(면직물 제조), 687(의류제조) 등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¹³⁾ 제23판과 비교하면 '염직물공예' 항목이 없는 점과 하위항목의 세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거의 비슷한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NDC 新訂9版(이하 판차 생략)의 의류학 분야는 383.1(복장, 복식사), 577(염료), 578.5/.7(섬유화학), 584(피혁공업, 피혁제품), 585(섬유공학), 587(염색가공, 염색업), (593(의복, 재봉), 594(수예), 753(염직공예) 등에 배치되어 있다.¹⁴⁾

LCC의 의류학 분야는 GT(예절, 풍속), HD(사회과학: 산업), NK(장식예술), TP(화학기술), TS(제조업), TT(수공예, 공작)의 세목으로 전개되어 있다.¹⁵⁾ 즉, GT500-2370(의복, 드레스, 패션), HD9850-9969(직물산업), NK4700-4890(장식예술: 의상), NK8800-9050(장식예술: 직물), TP890-933(직물 표백, 염색, 인쇄 등), TS940-1047(피혁 제조업, 무두질), TS1060-1070(모피), TS1300-1865(섬유산업), TT387-410(수공예, 공작: 부드러운 가정용품), TT490-695(의류제조, 여성복 제조/양재, 재봉업), TT697-927(재봉, 자수, 장식적 공예를 포함한 가정공예), TT980-999(세탁작업) 등에 의류학이 배치되어 있다.

11)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제1권(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9).

12)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th ed(Dublin, Ohio :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2011).

13) Melvil Dewey, *A Classification and Subject Index for Cataloguing and Arranging the Books and Pamphlets of a Library*(Amherst, Mass. : Amherst College Library, 1876).

14) 日本圖書館協會, 日本十進分類法, 新訂9版, 本表編(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95).

15)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G. Geography, Maps, Anthropology, Recreation*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2001).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N. Fine Arts*(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2011).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T. Technology*(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2010).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의류학 분야 문헌분류 체계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표 2>에서와 같이 분류기호만 다를 뿐 분류항목의 구분방법은 각 분류법마다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으며, 주제에 따라 분산 배치하다 보니 동일한 세목이 분류법에 따라 다르게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의류학의 취급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산재되어 있지만 의류학 관련 주제의 주축은 생활과학이나 가정학의 세목인 '의복'이며, 실제 도서관의 분류에 있어서도 의류학 관련 종합자료는 대부분 여기에 분류되고 있다.

둘째, 의류학의 학문영역에서나 연구분류체계에서 복식디자인 부분의 영역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분류법에서는 상대적으로 하위 세목에 분류되어 있다. KDC에서는 592(의복)의 세목인 592.02, DDC는 746(염직물공업)의 세목인 746.92에 배치되어 있다.

셋째, KDC와 DDC를 비교 분석한 결과, KDC 의류학 분야는 전반적으로 DDC 분류체계를 참조하여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KDC 의류학 분야의 분류체계는 DDC의 분류체계와 거의 유사하지만, 한국의 실정에 맞게 한국적인 주제를 추가로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복(592.31), 한복의 액세서리(592.381) 등이다. 이는 NDC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KDC나 DDC, NDC에 비해 LCC는 하위항목의 세분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면, GT의 2077(수영복), 2111(머리띠), 2112(베일/면사포), 2125(장식띠), 2190(머프), 2210(우산, 파라솔)이 추가로 전개되었고, HD의 9935(자수)가 추가로 전개되고, 9937-9939(바닥마감재, 카펫, 융단 등)의 하위항목이 더 세분되어 있다. 또한 TS의 1300-1865(직물제조업)은 약 233개, TT490-695(의류제조, 여성복 제조/양재, 재봉업)은 114개의 하위항목이 전개되고 있는데 비해 KDC나 DDC, NDC 등에는 50여개의 항목에 불과하다.

다섯째, NDC의 경우 섬유화학을 화학공업의 하위항목인 고분자화학공업(578)에서 세목으로 섬유화학(578.5/.7)을 전개하고 있으나 KDC나 DDC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제조업의 하위항목인 직물 및 섬유공업에서 함께 분류하고 있어 고분자화학공업과 섬유화학의 구분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III. KDC 의류학 분야의 문제점 및 수정 전개 방안

1. KDC 의류학 분야의 문제점

앞절에서 분석한 의류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과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KDC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KDC나 DDC, NDC 구조의 특징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일차적으로 학문영역이나 연구분야로 범주화하고 있다. 즉, 주제가 아니라 학문영역에 따른 지식구조를 주된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2〉 주요 문헌분류법의 의류학 분야 분류체계

KDC	DDC	NDC	LCC
380 풍속, 예절, 민속학 381.3 복식 381.33 남성복 381.35 여성복 381.37 아동복 381.39 보조의류 및 장신구	390 풍속, 예절, 민속학 391 복식 및 장신구 391.1 남성복 391.2 여성복 391.3 아동복 391.4 보조의류 및 액세서리	380 풍속습관, 민속학, 민족학 383.1 복장, 복식사 383.14 남성 383.15 여성 383.16 아동 383.2 장신구	GT 예절, 풍속 GT500-2370 의상, 드레스, 패션
570 화학공학 577 세탁, 염색 및 동계공학 577.1 세탁 및 표백 577.2 염료와 색소 577.3 염색과 날염	660 화학공학 667 세탁, 채색, 도장 및 관련기술 667.1 세탁 및 표백 667.2 염료와 색소 667.3 염색과 날염	570 화학공업 577 염료 577.1 염료화학 ... 577.9 기타 염료 578 고분자화학공업 578.5/7 섬유화학	TP 화학기술 TP890-933 직물 표백, 염색, 인쇄 등
580 제조업 585 피혁 및 모피공업 587 직물 및 섬유공업 587.1 직물제조법 일반 587.2 식물성 섬유직물 587.3 동물성 섬유직물 587.4 합성섬유 587.5 광물성 섬유 및 직물 587.8 기타 직물 및 가공 587.9 밧줄, 의복장식물 및 동종제품 588 의류제조	670 제조업 675 피혁 및 모피공업 677 직물 및 섬유공업 677.1 인피 섬유직물 677.2 식물성 섬유직물 677.3 동물성 섬유직물 677.4 인건 섬유직물 677.5 기타 특수섬유직물 677.6 특수 직물가공 677.7 밧줄, 의복장식물 677.8 외과 거즈 및 면직물 687 의복제조 및 액세서리	580 제조공업 584 피혁공업, 피혁제품 586 섬유공학 586.1 섬유관리, 원료, 재료 ... 586.9 기타 섬유공업 587 염색가공, 염색업 587.1 염색화학, 염색시험 ... 587.9 589.2 기타 공업: 피복	TS 제조업 TS940-1047 피혁 제조업, 무두질 TS1060-1070 모피 TS1300-1865 섬유산업
590 생활과학 592 의복 592.01 의복관리, 패션일반 592.02 디자인 592.03 패션 마케팅 592.04 기타 패션 592.1 의복재료와 도구 592.2 재봉법, 홈패션제작 592.3 가정 의복제작 및 장식품의 제조 592.4 의류의 선택 및 구입 592.5 의복 세탁 및 염색 592.6 의복 정리 및 보관 592.8 의복 착용법	640 가정 및 가족관리 646 의복, 재봉, 개인 및 가족생활 관리 646.1 의복재료와 도구 646.2 재봉법, 홈패션제작 646.3 의복 및 장식품 646.4 가정의 의복제작 및 장식품의 제조 646.5 모자의 제조 646.6 의복과 장식품보관 646.7 개인 및 가족생활 관리	590 가정학, 생활과학 593 의복, 재봉 593.1 기모노, 일본재봉 593.2 중국옷, 한국옷 593.3 양복, 양재 593.4 피복재료 593.5 피복관리 593.7 가정염색 593.8 옷차림, 액세서리 594 수예 594.1 수예재료, 도안 594.2 자수, 여자(紵刺) 594.3 편물 ... 594.9 기타 수예	TT 수공예, 공작 TT387-410 가정용품 TT490-695 의류제조, 여성복 제조/양재, 재봉업 TT697-927 재봉, 자수 TT980-999 세탁작업
630 공예, 장식미술 636 염직물공예, 섬유공예 636.3 직물 636.5 자수공예 636.8 염색공예 636.9 조화	740 도화, 장식미술 746 염직물공예 746.1 직물 준비 및 직조 746.2 레이스 및 관련직물 746.3 그림, 벽걸이, 태피스트리 746.4 바느질 및 수세공 746.5 구슬자수 746.6 날염, 염색 746.7 융단(깔개) 746.9 기타 섬유제품 746.92 의상, 패션디자인	750 공예 753 염직공예 753.2 염색사 753.3 직물 753.4 袋物, 유리구슬세공 753.7 자수 753.8 염물	NK 장식예술 NK2975-3049 태피스트리 NK4700-4890 의상 NK8800-9505 직물

이는 복수의 자료가 동일한 주제 분야를 다루었는지라도 접근 또는 기술한 관점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관점을 중시하여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자의 선택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관점에 따른 군집력이 강하지만 앞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관련 주제가 분산되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의복'의 경우, KDC에서 민속적인 측면은 391, 제조업 측면은 588, 패션디자인 측면은 592.02에 분류한다. 이 예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학문영역이 가지는 중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특정 개념이 학문영역에 따라 상이한 관점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의류학의 분류항목을 분석해 보면 각 항목의 세목이 분류체계상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항목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섬유를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나누어 기존의 분류항목을 분석하면, 587.5(광물성섬유)의 세목가운데 587.51(석면직물)은 광물성섬유이지만, 587.52(초자직물)와 587.53(금속섬유)은 무기섬유이며, 587.55(고무섬유 및 직물)은 재생섬유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587.42(레이온)와 587.44(단백질직물)는 합성섬유와 구분하여 대개 재생섬유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합성섬유는 크게 축합중합섬유와 부가중합섬유로 구분하는데 부가중합섬유만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의류학의 학문적 관점에서 비논리적인 곳이 있다.

셋째, 학문발전의 추세에 부응하여 새로운 주제를 추가하거나 수정 전개하지 않으면 특정 분류항목에 자료가 집중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0』¹⁶⁾을 조사하여 이러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0』에는 해방이후 2010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국내 출판 도서를 비롯하여 학위논문과 비도서자료 등 300만건이 DVD에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의류학 분야 자료는 총 15,400여건이며, 분류기호를 검색하여 유별 분포를 분석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587(직물 및 섬유공업)의 3,099권 가운데 587.47(부가중합섬유 및 직물)에 1,308권이 집중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592.02(디자인)의 1,702권 가운데 하위세목(592.021, 592.022, 592.023)의 715권을 제외하면 987권이 592.02라는 기호를 갖고 있으며, 592.03(패션 마케팅)의 973권 가운데 하위세목(592.033, 592.032, 592.033)의 152권을 제외하면 821권이 592.03라는 기호를 갖고 있다. 또한 592.4(의류의 선택 및 구입)에 834권, 636.3(직물)에 1,296권, 636.8(염색공업)에 679권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항목은 대부분 동일한 분류기호에 자료가 500여권 이상 집중되어 있어 주제를 더 세분하지 않으면 분류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이외의 항목들은 대부분 세분하지 않아도 하위세목이 충분히 전개되어 있거나 관련 자료의 유별분포가 100권미만의 항목들이다. 예를 들면 <표 3>에서 592.3(가정의 의복제작 및 장식품의 제조)에는 1,649권이 분포되어 있으나 46개의 세목이 전개되어 있으며, 각 세목의 유별현황을 조사한 결과 100권 이상 분포되는 항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381.30911(한국의 복식사)에는 458권이 분포되어 있으나 다시 시대별에 세분되어 자료가 분산되고 있다.

16)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0(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11).

〈표 3〉 의류학 분야 유별 자료현황: 국립중앙도서관

(단위: 권)

KDC 분류항목	자료수	KDC 분류항목	자료수
381.3 복식	853	588 의류제조	305
381.309 각국의 복식사	696	588.1 의류제조업	93
381.30911 한국의 복식사	458	588.2 내의	16
381.33 남성복	11	588.3 메리야스, 스웨터	14
381.35 여성복	21	592 의복	7,953
381.39 보조의류 및 장신구	67	592.01 의복관리, 패션일반	791
577 세탁, 염색 및 동계	688	592.02 디자인	1,702
577.1 세탁 및 표백	78	592.03 패션 마케팅	973
577.2 염료와 색소	318	592.1 의복재료와 도구	243
577.3 염색과 날염	148	592.2 재봉법, 홈패션 제작	395
585 피혁 및 모피공업	53	592.3 가정의 의복제작 및 장식품의 제조	1,649
587 직물 및 섬유공업	3,099	592.4 의류의 선택 및 구입	834
587.1 직물제조법 일반	490	592.5 의복 세탁 및 염색	206
587.2 식물성 섬유직물	136	592.6 의복 정리 및 보관	20
587.3 동물성 섬유직물	175	592.8 의복 착용법	70
587.4 합성섬유	1,569	636 염직물공예, 섬유공예	2,473
587.47 부가중합섬유 및 직물	1,308	636.3 직물	1,296
587.5 광물성 섬유 및 직물	91	636.5 자수공예	213
587.8 기타 직물 및 가공	44	636.8 염색공예	679

*10권 미만의 분류항목은 나타내지 않았음

2. KDC 의류학 분야의 수정 전개 방안

앞서 분석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며, 원칙적으로 의류학 분야의 학문체계에 따르되 기존의 KDC 분류체계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즉, 분류명사나 항목의 세분 전개를 위해서는 의류학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며, 항목간의 이동은 최소화 한다. 특히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정 분류기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587.47, 592.02, 592.03, 592.4, 636.3, 636.8의 분류항목을 대상으로 세목전개를 위한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며, 세목의 전개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의류학 관련 개론서를 참고한다.

가. 새로운 주제의 추가 및 수정 전개

(1) 587(직물 및 섬유공업)의 수정 전개

섬유제품의 원료에 쓰이는 섬유를 그 생성과정에 따라 대별하면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나누어진다. 천연섬유에는 식물섬유·동물섬유·광물섬유가 있으며, 인조섬유는 무기섬유와 유기섬유로 대별할 수 있는데, 무기섬유에는 금박사·은박사 등의 금속섬유가 있고, 유리섬유·암석섬유·광재섬유 등의 규산염섬유가 있다. 유기섬유에는 재생섬유 및 반합성섬유·합성섬유로 나누어진

다.17) 이를 근거로 587(직물 및 섬유공업)을 섬유의 생성과정에 따라 분류항목을 수정 전개하면 <표 4>과 같다. 즉, 천연섬유에 해당하는 식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 광물성 섬유를 먼저 배치하고, 이어서 무기섬유, 합성섬유, 재생섬유의 순으로 배치하였다.

<표 4> 587(직물 및 섬유공업)의 개선안

현행	개선안
587 직물 및 섬유공업	587 직물 및 섬유공업
587.1 직물제조법 일반	587.1 직물제조법 일반
587.2 식물성 섬유직물	587.2 식물성 섬유직물
587.3 동물성 섬유직물	587.3 동물성 섬유직물
587.4 합성섬유	587.4 광물성 섬유
587.5 광물성 섬유 및 직물	587.5 무기섬유
587.8 기타 직물 및 가공	587.6 합성섬유
587.9 밧줄, 의복장식물 및 동종제품	587.7 재생섬유
	587.8 기타 직물 및 가공
	587.9 밧줄, 의복장식물 및 동종제품

(2) 587.4(합성섬유)의 수정 전개

587.4(합성섬유)의 세목을 분석해보면 합성섬유와 재생섬유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합성섬유도 축합중합섬유와 부가중합섬유 가운데 부가중합섬유만 분류항목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앞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현황 분석에서도 합성섬유 분야의 세목을 포함한 587.4의 전체 자료 1,569권 가운데 587.47(부가중합섬유 및 직물)에 분류되는 자료가 83%에 이르고 있어 수정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합성섬유 관련 개론서를 살펴보면 합성섬유는 대개 화학적으로 저분자 화합물로부터 고분자(중합체) 화합물을 합성하고 이 합성중합체를 원료로 만든 것이며, 합성방법에 따라 축합중합법과 부가중합법의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¹⁸⁾ 축합중합 섬유는 폴리아미드 섬유(나이론), 폴리에스테르 섬유, 폴리우레탄 섬유(스판텍스) 등이 있으며, 부가중합 섬유에는 아크릴 섬유, 모드아크릴 섬유, 폴리비닐알코올 섬유, 폴리염화비닐리덴 섬유, 폴리비닐리덴디니트릴 섬유,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섬유 등이 있다. 반합성섬유에는 아세테이트 섬유, 트리아세테이트 섬유 등이 있으며, 재생섬유에는 셀룰로오스 섬유(레이온), 아세트산셀룰로오스 섬유, 재생단백질 섬유 등이 있다. 반합성섬유를 재생섬유의 범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편, 나노섬유는 머리카락 굵기의 1/100이하의 미세한 굵기로 수축 가공한 첨단기술의 폴리에스테르로 이루어져있다. 이것은 흡수, 배수력이 뛰어난 독특한 섬유로서 실의 타입과 섬유 생산 과정이 일반적인 면이나, 실크, 여타 인조섬유와는 전혀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87.68(나

17) 두산 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인용 2012. 8.5].

18) 김성련, 被服材料學, 第3改訂增補版(서울 : 敎文社, 2009), pp.9-11.
안병기, 피복재료학(서울: 경춘사, 2004), pp.128-158.
金景煥, 最新纖維材料學(서울 : 文運堂, 1998), pp.14-15.

노섬유 및 직물)을 새로운 주제로 추가하여 전개하였다. 이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J07(섬유제조)에 포함되어 있는 주제를 참고하여 추가한 것이다.

〈표 5〉 587.4(합성섬유)의 개선안

현행	개선안
587 직물 및 섬유공업	587 직물 및 섬유공업
587.4 합성섬유	587.6 합성섬유
587.41 인견직물	587.61 축합중합섬유 및 직물
587.42 레이온	587.611 폴리아미드 섬유: 나일론, 아미란
587.44 단백질직물	587.612 폴리에스테르 섬유
587.45 나일론	587.613 폴리우레탄 섬유: 스판덱스
587.47 부가중합섬유 및 직물	587.618 기타 축합중합섬유
587.55 고무섬유 및 직물	587.62 부가중합섬유 및 직물
	587.621 아크릴 섬유
	587.622 모드아크릴 섬유
	587.623 올레핀 섬유
	587.624 폴리비닐알코올 섬유: 비니론, 비니온, 오론
	587.628 기타 부가중합체 합성섬유
	587.68 나노섬유
	587.7 재생섬유, 반합성섬유
	587.71 아세테이트 섬유, 트리아세테이트 섬유
	587.72 셀룰로오스 섬유: 레이온
	587.73 아세트산셀룰로오스 섬유
	587.74 재생단백질 섬유
	587.75 고무섬유
	587.78 기타 재생 및 반합성섬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587.4(합성섬유)를 수정 전개하면 〈표 5〉와 같다. 즉, 합성섬유를 축합중합섬유와 부가중합섬유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이어서 재생섬유와 반합성섬유를 순서대로 배치하였다. 587.4(합성섬유)의 세목인 ‘레이온’과 ‘단백질직물’은 재생 및 반합성섬유로, ‘나일론’은 부가중합중섬유로 배치되었으며, ‘인견직물’은 삭제되었다. 587.5(광물성섬유)의 세목인 ‘고무섬유 및 직물’은 재생 및 반합성섬유의 세목으로 이치되었다.

(3) 587.5(광물성섬유 및 직물)의 수정 전개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섬유제품은 크게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구분되며, 천연섬유는 식물섬유·동물섬유·광물섬유, 인조섬유는 무기섬유와 유기섬유로 구분된다. 무기섬유에는 금박사·은박사 등의 금속섬유와 유리섬유(초자섬유)·암석섬유·광재섬유 등의 규산염섬유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587.5(광물성 섬유 및 직물)를 수정 전개하면 〈표 6〉과 같다. 즉, 광물성섬유에 해당하는 석면직물만 그대로 두고, 금속섬유와 규산염섬유는 무기섬유에, 고무섬유와 종이섬유는 각각 재생섬유와 식물성섬유로 이치되었다.

〈표 6〉 587.5(광물성섬유)의 개선안

현행	개선안
587.5 광물성 섬유 및 직물	587.4 광물성 섬유 및 직물
587.51 석면직물	587.41 석면직물
587.52 초자직물	
587.53 금속섬유	587.5 무기섬유
587.55 고무섬유 및 직물	587.51 금속섬유
587.57 종이섬유 및 직물	587.52 규산염섬유(유리섬유, 초자직물)
	587.55 고무섬유 및 직물 → 587.75(고무섬유)로 이치
	587.57 종이섬유 및 직물 → 587.2(식물성 섬유직물)에 포함

(4) 592.02(디자인)의 수정 전개

592.02(디자인)의 세목을 분석해보면 〈표 7〉에서와 같이 디자인분야의 일반적인 영역가운데 일부분만이 전개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현황 분석에서도 592.02의 하위세목에 분류되지 않고 592.02에 분류되는 자료가 57%에 이르고 있어 592.02의 세목을 디자인분야의 영역별로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다.

〈표 7〉 592.02(디자인)의 개선안

현행	개선안
592 의복	592 의복
592.02 디자인	592.02 디자인
592.021 일러스트레이션, 도안	592.021 일러스트레이션, 도안
592.022 의복의 사진	592.022 사진, 전시, 작품전
592.023 의복의 조화, 색채	592.023 색채표현
	592.024 형태표현: 선, 형
	592.025 재질감
	592.026 구성원리: 비례, 균형, 리듬, 강조, 통일 등
	592.027 신체인자와 디자인: 얼굴, 체형 등
	592.028 계층별, 용도별 디자인
	592.0281 남성용 디자인
	592.0282 여성용 디자인
	592.0283 아동용 디자인

디자인 분야 개론서를 분석하면 대체로 디자인일반(개념, 특성, 디자인전시 등), 디자인요소(선, 형태, 색채, 소재), 디자인 구성원리(비례, 균형, 리듬, 강조, 통일, 조화), 패션스타일(남성, 여성, 아동), 디자인 실제(일러스트레이션, 프로세스 등) 등으로 목차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¹⁹⁾ 이를 바탕으로 592.02(디자인)를 수정 전개하면 〈표 7〉과 같다. 즉, 일러스트레이션 및 도안, 의복의 사진은 기존의 분류항목 그대로 두고, 디자인의 색채표현, 형태표현, 재질감, 구성원리, 신체와 디자인, 계층별

19) 한성지, 김이영, 패션디자인(서울 : 교학연구사, 2007), pp.6-13.
이정주, 유효순, 패션디자인(서울 : 신광출판사, 2008), pp.4-6.
이호정, 패션디자인, 개정판(서울 : 교학연구사, 1999), pp.5-9.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전개하였다.

(5) 592.03(패션마케팅)의 수정 전개

592.03(패션마케팅)의 세목을 분석해보면 <표 8>에서와 같이 패션마케팅 분야의 일반적인 영역 가운데 일부분만이 전개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현황 분석에서도 592.03의 하위세목에 분류되지 않고 592.03에 분류되는 자료가 84%에 이르고 있어 592.03의 세목을 패션마케팅 분야의 영역별로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다.

패션마케팅은 패션마케팅 일반, 고객의 필요와 욕구, 패션상품과 브랜드, 고객가치와 혜택, 교환·거래·관계, 패션시장을 핵심개념으로 하고 있으며,²⁰⁾ 이 분야 개론서의 목차구성을 분석하면 대체로 패션마케팅일반, 각국의 패션산업, 패션소비자 행동, 패션마케팅 전략수립, 패션제품관리, 패션머천다이징, 패션가격관리, 패션커뮤니케이션, 패션유통관리, 인터넷마케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²¹⁾

이를 바탕으로 592.03(패션마케팅)을 수정 전개하면 <표 8>과 같다. 즉, 기존의 592.031(디스플레이, 의상진열)과 592.033(패션쇼, 모델 및 분장)을 592.031(패션진열, 패션쇼, 모델 및 분장)로 통합하였으며, 592.032(광고)는 592.037(패션커뮤니케이션: 광고, 홍보, 판촉)로 이치하였다. 그리고 패션소비자 행동, 패션마케팅 전략수립, 패션제품관리, 패션머천다이징, 패션가격관리, 패션커뮤니케이션, 패션유통관리 및 글로벌화, 패션산업 현황으로 구분하여 전개하였다.

<표 8> 592.03(패션마케팅)의 개선안

현행	개선안
592 의복	592 의복
592.03 패션마케팅	592.03 패션마케팅
592.031 디스플레이, 의상진열	592.031 패션진열, 패션쇼, 모델 및 분장
592.032 광고	592.032 패션소비자 행동
592.033 패션쇼, 모델 및 분장	592.033 패션마케팅 전략수립: 시장세분화, 표적시장선택 등
	592.034 패션제품관리: 브랜드, 패션주기
	592.035 패션머천다이징: 신제품개발
	592.036 패션가격관리
	592.037 패션커뮤니케이션: 광고, 홍보, 판촉
	592.038 패션유통관리, 글로벌화
	592.0381 인터넷마케팅
	592.039 패션산업 현황. 지역별 세분

20) 최선형 외, (21세기) 패션마케팅, 개정판(서울 : 창지사, 2010), pp.58-59.

21) 안광호, 황선진, 정찬진, 패션마케팅, 제3판(서울 : 수학사, 2010), pp.6-13.

최채환, 패션마케팅(서울 : 경춘사, 2008), pp.4-7.

김일, 황선정, 패션 마케팅(서울 :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9), pp.3-9.

(6) 592.4(의류의 선택 및 구입)의 수정 전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현황 분석에서 592.4(의류의 선택 및 구입)에는 834권이 분포되어 있다. 이들 자료를 대상으로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이용자계층별 구매행동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의류선택, 쇼핑성향, 소비자평가, 구매방식 등에 자료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592.4를 수정 전개하면 <표 9>와 같다. 즉, 의류선택, 구매행동, 소비자평가, 구매방식으로 구분하여 전개하였다.

<표 9> 592.4(의류의 선택 및 구입)의 개선안

현행	개선안
592 의복	592 의복
592.4 의류의 선택 및 구입	592.4 의류의 선택 및 구입
	592.41 의류선택
	592.42 구매행동
	592.421 남성
	592.422 여성
	592.423 노년
	592.424 대학생
	592.425 중고생, 청소년
	592.426 조동, 유아
	592.43 소비자평가
	592.44 구매방식
	592.441 인터넷, 온라인구매

(7) 염직물공예의 수정 전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현황 분석에서 636(염직물공예)에는 2,473권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636.3(직물)에 1,296권, 636.8(염색공예)에 679권이 집중되어 있다.

염직물공예(textile arts, 섬유공예)는 섬유를 이용해 실과 직물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실이나 직물로 뜨개질이나 바느질을 통해 생활용품이나 장식품을 만드는 과정이며, 여기에는 염색까지 포함된다.²²⁾ 최근에는 평면에서 입체적인 작품으로 확산되는 등 섬유조형 영역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염직물공예를 크게 염색공예, 직조, 텍스타일디자인, 섬유조형으로 구분한다.²³⁾ 염색공예에는 염색재료, 염색방법, 염색디자인, 염색이미지(주제) 등이 포함되며, 직조에는 평직, 능직, 주자직, 변화조직, 그리고 텍스타일디자인에는 색채표현, 형태표현(선, 형), 재질감, 구성원리, 직물형상화 및 이미지 등이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636(염직물공예)을 수정 전개하면 <표 10>과 같다.

22) 권상오 외, 공예재료와 기법(서울 : 태학원, 1999), pp.6-7.

염준상, 공예개론(서울 : 서울산업대학, 1990), pp.204-212.

23) 이수철, 윤민희, (현대인의 교양을 위한) 공예의 이해(서울 : 예경, 2000), pp.44-45.

<표 10> 636(염직물공예)의 개선안

현행	개선안
636 염직물공예, 섬유공예 636.3 직물 636.8 염색공예	636 염직물공예, 섬유공예 636.3 직물 .31 재료: 실, 천 .32 직조 .321 평직 .322 능직(사문직) .323 주자직(수자직) .324 변화조직 .33 직물디자인 .331 색채표현 .332 형태표현 .333 재질감 .334 구성원리 .35 직물형상화, 이미지 .36 섬유조형(섬유예술) 636.8 염색공예 .81 염색재료: 천연염료, 합성염료 .82 염색방법: 정련 및 표백, 염색기법 .83 염색디자인 .85 염색형상화, 이미지

나. 부적절한 분류용어 수정 및 항목의 이치

(1) 부적절한 분류용어 수정

일반적으로 피복이란 넓은 의미로는 우리들 생활주변에서 사용되는 모든 직물류로서 의복은 물론 침구류와 커튼, 카펫 등을 총칭하며, 좁은 의미로서는 인체 내부를 둘러 싸 주는 모든 피복물을 말한다. 즉, 의복과 머리에 쓰는 것, 손에 끼는 것, 발에 신는 것 등 모두가 포함된다. 이보다 좁은 의미로 쓰이는 의복이라는 용어는 인체의 구간부(동체, 사지부)를 둘러 싸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옷’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말이다. 따라서 모자, 장갑, 양말과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KDC 제5판에서는 592의 분류용어를 의복으로 표기하고 있다. 592(의복)의 하위항목에는 우리들 생활주변에서 사용되는 모든 직물류로서 의복, 침구류, 커튼, 카펫 등을 포함하고, 모자, 장갑, 양말과 같은 것도 포함하여 전개하고 있으므로 592의 분류용어로서 ‘의복’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 이러한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용어인 ‘의류’ 또는 ‘피복’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동일한 의미의 용어를 다르게 나타내고 있어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표 11>에서와 같이 영어표기 ‘accessories’가 ‘액세서리’와 ‘장식품’, ‘부속물’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데, 이를 한 가지의 용어로 통일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분류항목의 이치

381.309(각국의 복식사)와 592.39(각국의 고유 민속의상)는 분류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표 11>과 같이 592.39는 삭제하고 381.309를 '각국의 복식사, 고유 민속의상'으로 한다.

(3) 분류주기 첨가

NDC의 경우 섬유화학을 화학공업의 하위항목인 고분자화학공업에서 세목으로 섬유화학을 전개하고 있으나 KDC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제조업의 하위항목인 직물 및 섬유공업에서 함께 분류하고 있으므로 보다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표 11>에서와 같이 578(고분자화학공업)에 "섬유관련 화학공학은 모두 587.6에 분류하라"는 주기를 첨가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이다.

<표 11>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한 개선안

분류기호	현행	개선안
592	의복 (Management of clothing)	의류, 피복 (Management of clothing)
588.8	피복부속물제조업	피복엑세서리 제조업
592.3	가정의 의복제작 및 장식품의 제조	가정의 의복제조 및 엑세서리의 제조
381.309	각국의 복식사	각국의 복식사, 고유 민속의상
592.39	각국의 고유 민속의상	삭제 → 381.309로 이치
578	고분자화학공업	고분자화학공업 섬유관련 화학공학은 모두 587.6에 분류하라.

IV. 결 론

이 연구는 의류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과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의류학 분야의 분류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KDC 의류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의류학 분야의 학문적 연구영역이 연구분류체계와 문헌분류체계에서는 대부분 사회과학의 하위항목인 민속학(복식)과 기술과학의 하위항목인 화학공학(세탁, 염색공학), 제조업(피혁 및 모피공업, 직물 및 섬유공업, 의류제조), 생활과학(의복), 예체능의 하위항목인 공예 및 장식미술(염직물공예) 등의 세목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다. 이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KDC나 DDC, NDC 등의 분류법이 주제가 아니라 학문영역에 따른 지식구조를 주된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의류학 분야 KDC 유별 자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587.47, 592.02, 592.03, 592.4, 636.3, 636.8 등의 분류항목에 지나치게 자료가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세목

전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항목을 중심으로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분류항목의 수정 전개는 원칙적으로 의류학 분야의 학문체계에 따르되 기존의 KDC 분류체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즉, 분류명사나 항목의 세분전개는 의류학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전개하였으며, 항목간의 이동은 최소화 하였다.

넷째, 의류학 분야의 분류항목가운데 분류체계상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용어가 부적절한 경우에도 수정 전개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2009 <<http://www.nrf.re.kr>> [인용 2012. 8. 5].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0.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11.
- 권상오 외. 공예재료와 기법. 서울 : 태학원, 1999.
- 金景煥. 最新纖維材料學. 서울 : 文運堂, 1998.
- 김성련. 被服材料學, 第3改訂增補版. 서울 : 敎文社, 2009.
- 김일, 황선정. 패션 마케팅. 서울 :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9.
- 김효숙. 한국십진분류법 가정학류의 분류표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4.
- 니수임, 이정순, 배주형. “한국의류학의 연구경향분석,” 복식문화연구, 제8권 제6호(2000), pp.853-863.
- 大韓家政學會. 衣類學. 서울 : 敎文社, 1990.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홈페이지. <<http://clothing.snu.ac.kr/>> [인용 2012. 8. 5].
- 성수광. 의류학개론. 서울 : 교문사, 1997.
- 안광호, 황선진, 정찬진. 패션마케팅, 제3판. 서울 : 수학사, 2010.
- 안명자. “의류학의 연구동향.” 논문집(대구산업정보대학), 제1권(1987), pp.351-372.
- 안병기. 피복재료학. 서울: 경춘사, 2004.
- 엄준상. 공예개론. 서울 : 서울산업대학, 1990.
- 이명규. “공예 미술의 분류,” 현대사회과학연구(전남대학교), 제11권, 제1호(2000), pp.69-89.
- 李善宰. 衣類學概論, 改訂版. 서울 : 수학사, 1993.
- 이수철, 윤민희. (현대인의 교양을 위한) 공예의 이해. 서울 : 예경, 2000.
- 李洋淑. 家政學部門 分類表의 比較分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86.
- 이정주, 유효순. 패션디자인. 서울 : 신광출판사, 2008.
- 이호정. 패션디자인, 개정판. 서울 : 교학연구사, 1999.

- 鄭燦辰, 朴信貞, 黃善珍. “韓國 衣類學 研究의 現況과 再照明: 1959-1990,” 韓國衣類學會誌, 제15권, 제1호(1991), pp.28-37.
- 趙貞嬉. 新衣類學概論, 改訂版. 서울 : 耕春社, 1990.
- 최선형 외. (21세기) 패션마케팅, 개정판. 서울 : 창지사, 2010.
- 최채환. 패션마케팅. 서울 : 경춘사, 2008.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9.
-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2012 <<http://www.nrf.re.kr>> [인용 2012. 8. 5].
- 한성지, 김이영. 패션디자인. 서울 : 교학연구사, 2007.
- 日本圖書館協會. 日本十進分類法, 新訂9版.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95.
- Chan, Lois Mai etc.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 Practical Guide*, 2nd ed. New York : Forest Press, 1996.
- Dewey,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th ed. Dublin, Ohio :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2011.
- Dewey, Melvil. *A Classification and Subject Index for Cataloguing and Arranging the Books and Pamphlets of a Library*. Amherst, Mass. : Amherst College Library, 1876.
-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G. Geography, Maps, Anthropology, Recreation*.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2001.
-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N. Fine Arts*.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2011.
-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T. Technology*.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2010.